


공동체 소식



부활 제2주일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 오늘은 ‘부활 제2주일’ 이며, ‘하느님의 자비주 일’ 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경축합니다.

■ ‘성주간 전례’ 와 ‘부활 대축일’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부활시기’ 안내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강림 대축일까지 50일간)

■ 전례꽃 봉헌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봉헌자 : 김경돌, 김계화, 김말자, 김인자, 김정자, 김화년, 이경남, 정연숙, 조지연, 박태주. (이상 10명)
- 봉헌총액 : 220달러.

■ 소공동체 봉사자 모임(구역장반장 모임)

- 일시 : 4/30(주일) 교중미사 후
- 장소 : 나자렛관(본당회관)

■ 캔사스대교구 ‘Archbishop’ s Call to Share’ 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을 위한 모금에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북미주 한인체육대회 기금마련 ‘일일식당’

- 주관 : 재미 대한 캔사스 체육회 (동양슈퍼 안경호 사장님)
- 일시 : 4/30(주일) 오후2:30-8:00
- 장소 : 캔사스 선교회회 8841 Glenwood St. O.P. KS 66212

주님의 죽음으로써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써
모든 이가 새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부활 감사송 2 <그리스도의 새 생명> 중-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134	210	499	131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문예나 요안나 정예진 한나	이원준 요한
차 주	차민서 임마누엘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김명은 안젤라	박희영 카타리나	최선윤 마리아
차 주	정수한 베드로	김화년 요안나	김명은 안젤라

■ 애찬 봉사자

금 주	백문주, 최은미, 윤지선
차 주	정지현, 조지연, 김지혜

■ 헌금 봉사자

금 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차 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4/16일	95명	680달러	0달러
성목요일-135달러, 성금요일-137달러, 부활성야-237달러 Rice Bowl헌금-581달러.			
(총 0세대)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4월 23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부활 제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 주일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어 성자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 사도들의 증언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게 하시어, 주님과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요한 20, 27-28)

믿기를 거부했던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비로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주님은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뺨까지 파고드는 절절한 고백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피를 흘리기까지 주님을 증언합니다.

김옥순 수녀 | 성바로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2,42-47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 2 독 서 :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1,3-9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19-31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쉐 마

참으로 행복한 사람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에서 마리아 막달레나와 베드로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주간 첫날 이른 아침,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 아침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무덤 밖에서 울고서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의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뵈게 된 마리아는 즉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을 모두 잠가 놓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그날 밤, 곧 주일 밤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직접 나타나십니다. 두 손과 옆구리에 영광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분명 알 수 있는 몸이었지만, 문이 잠겨 있는데도 들어올 수 있는 완전히 변화된 몸, 이 땅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토마스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였지만 토마스는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토마스가 자주 언급되는데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던 인물이었습니다.(요한 11,16; 14,5)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같이 죽으러 가자고 말하던 토마스였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에 제자들 앞에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토마스를 위하여 한 번 더 나타나신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알아봅니다. 그런 토마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 모든 이들 앞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마주해야 할 십자가, 곧 그들이 받은 사명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당신을 증언하는 삶은 2독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듯이 갖가지 시련을 날을 것이고, 결국 목숨을 요구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화관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서를 읽었던 실제 독자들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본 제자들이 목숨으로 증언한 증언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제자들만큼의 희생, 순교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그분을 따라나서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도 당신을 믿고 따라나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부활 2주일을 지내는 오늘 우리도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께 다시 한 번 청합시다. 다시 한 번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영철호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교리산책

미사종(鐘)의 의미

미사 중에 복사가 치는 종을 '미사종'이라고 합니다. 미사종을 치는 이유는 미사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미사의 종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는 기쁨과 환희를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종을 치나요? '거룩하시도다'가 끝나면 사제는 성부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헌된 예물을 축성해 주시기를 청하며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감사기도 제2양식)

이 기도문을 바칠 때 사제는 두 손을 모아 빵과 포도주 위에 퍼 엮은 다음에 십자 표시를 합니다. 바로 이때 첫번째 종을 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물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시간이 시작되므로 집중하라는 신호입니다. 사제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계약의 피다."(마르 14,22-25 참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읊게 되는데 이 순간 빵과 포도주가 각각 성체와 성혈로 변화됩니다. 이를 성변화(聖變化)라 합니다.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사제가 잠시 높이 들면(성체 거양 聖體舉揚, 성혈거양 聖血舉揚), 성체와 성혈을 우러르자는 신호로 종을 칩니다. 그다음 사제는 성체와 성혈을 내려놓고 참례자들과 함께 허리를 깊이 숙여 흠숭의 예를 표하는데, 이때 절을 하기 위한 신호

로 종을 칩니다. 마지막 종은 사제가 미사에 참례한 모든 신자를 대표하여 성체와 성혈을 영할 때 칩니다. 이는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이므로 경건하게 기도를 올리라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미사 중에 통상적으로 여섯 번의 종을 칩니다. 특별한 이유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의 대영광송 때 길게 종을 치고, 그 후 부활 성야 미사의 대영광송 전까지 종을 치지 않습니다. 대신 나무로 만든 딱따기를 사용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수난에 우리도 엄숙하게 동참한다는 의미입니다. 부활 성야 미사의 대영광송 때 사제가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라틴어로는 Gloria in excelsis Deo!)"을 소리 높여 노래하면 다시 길게 종을 칩니다. 이때 장엄하게 울리는 종소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 김지영 사무엘 신부



복음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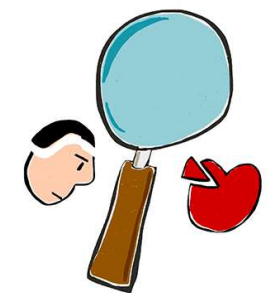
질문의 종류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머리를 채우는 질문
마음을 채우는 질문

합리화를 위한 질문
사랑을 위한 질문

내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질문
하느님이 옳음을 증명하는 질문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29)

- 임의준 신부